# 불국토 건설 위해 1만3천 천태불자 운집

**천태종 삼광사, 7월 15일**
**'국민화합 행복기원' 대법회 봉행**

**단양 구인사로 280여대 버스 향해**
**6월 24일 입재 철야기도 회향 자리**
**불국토 건설, 대승보살도 궁극 목표**
**불자들, 신심의 향연 "환희심 넘쳐"**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7월 15일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 앞마당에서 '국민화합 행복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1만3000 천태불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280여개의 대형 버스가 단양 구인사를 향해 줄을 이었다. 국민들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법회를 위해서다. 세찬 빗줄기도, 노구(老軀)의 고단함도 부처님을 향한 신심을 막진 못했다. 부처님께 올리는 서원의 간절함이 만든 대이동이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는 7월 15일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 앞마당에서 '국민화합 행복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윤달을 맞아 지난 6월 24일 입재한 3·7일 신중불공 및 참회정진특별철야기도의 회향 자리였다. 기도에 참여한 삼광사 신도 3000여명은 약 한 달 동안 국민의 행복과 화합을 발원했다.

7월 14일 마지막 철야정진기도가 끝난 직후 15일 새벽, 버스를 타고 구인사에 도착한 불자들은 환희심에 가득한 모습이었다. 대법회는 △삼귀의 △ 반야심경 △ 법어봉독 △ 국운융창기원 △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개회사 △ 도용 종정 스님 법문 △ 총무원장 춘광 스님의 치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필희(57) 씨는 "기도하는 동안 개인을 벗어나 도반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마지막 회향 날에는 국민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저 자신을 보며 환희심이 났다"며 "불국토 건설을 말씀 하시는 주지 스님의 말씀에 정말 불국토를 이룬 듯 행복하고 피곤한지도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차가 움직이는데 작은 사고조차 없었다.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정상갑(80) 씨는 "기도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스님들이 지도해주시고 도와주셨다"며 "정말 신심 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 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을 비롯해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참여해 기도를 원만회향한 불자들을 격려했다.

종정 도용 스님은 "청정한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화합하여 하나가 되니 아름답다"며 "남을 배려하고 늘 베푸는 마음이 자비로운 보살 수행이다. 깨달음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보시바라밀이 제일 바라밀이며 베풀며 정진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설법했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오늘 우리는 개인과 가정, 나아가 국가와 인류의 화합을 기원하며, 그 원력이 우주 만생의 평화와 행복으로 회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석을 마련했다"며 "이 장엄한 발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와 겸허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공동의 선을 실현하고 공동의 행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오늘 이 법회는 개인의 완성과 불국토 건설이라는 대승불교의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고 그 공덕으로 우주법계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고 봉행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삼광사는 천태종 복지성금 5,000만원과 장학성금 5,000만원을 총무원에 전달했으며 자비의 쌀 5000kg을 단양군청에 기부했다.

하성미 기자

# 영호남 청소년들 "지역감정 없는 밝은 사회 일궈요"

**맑고향기롭게 부산, 제12회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개최**

부산과 호남의 정겨운 사투리가 오가는 속, 청소년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어색했던 첫 만남도 잠시 지역갈등은 온데간데없이 화합을 꿈꾸는 희망의 웃음만 피어났다.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은 '제12회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을 7월 14~15일 신라대학교 및 삼정 더파크 동물원 일대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여수중앙여고 1학년 여학생 119명과 부산진여고 1학년 여학생 110명 등 총 229명이 참가했다. 14일 방문 첫 모임에서 신라대 백양생활관에 모인 학생들은 간단한 자기소개 후 여러 게임으로 친분을 쌓았다. 이어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은 △인사말 △축사 △환영사 △양교 교장선생님 인사말 및 학생대표 인사말 △기념품 전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 됐다. 다음 날 학생들은 삼정 더파크 동물원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을 이끄는 박수관 회장의 의지로 시작됐다. 정치인과 기성세대가 남긴 지역감정이란 부정적 유산을 후손에게 전하지 말아야한다는 결심에서다. 지난 11회 동안 2,800여명의 영호남 학생들이 소통했으며 프로그램 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다. 여름방학을 전후해 영호남을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동서 화합은 작은 시작에서 일궈진다"며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듯 교류가 계속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민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짧은 일정 속에 좋은 추억으로 인연이 지속되길 바란다"며 "활기찬 이 모습이 곧 한국의 미래"라고 축사했다.

김욱수 부산진여고 교장은 "함께 지낸 시간은 가까워질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하나 되고 벽을 허무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여수중앙여고 이재윤 교감은 "청소년에게는 처음부터 마음의 벽은 존재 하지 않았다"며 "이런 만남이 기성세대에게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시작했던 이 모임이 이렇게 발전해 꾸준히 진행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맑은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제12회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을 7월 14~15일 신라대학교 및 삼정 더파크 동물원 일대에서 개최했다.

하성미 기자

# 몽골 청소년 '도전 골든벨'을 울리다

**한나래문화재단, 제6회 도전 골든벨 진행**

(사)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은 7월 11~14일 몽골 아르와이헤르에 위치한 제1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6회 도전 골든벨'을 진행했다.〈사진〉

문제는 기본 상식과 한국전통문화 관련된 것이었다. 모든 문제를 통과해 골든벨을 울린 학생에게는 한국방문 기회가 주어졌다. 우승자는 이례적으로 2명이 나왔다. 우승자 2명은 50문제를 끝까지 문제를 풀고 추가 10문제도 모두 맞춰 큰 박수를 받았다. 학생 2명과 지도교사 1명은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 중 한나래문화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방문 기간 동안 이들은 서울 및 부산에 위치한 전통문화 관광지 및 사찰을 탐방하고 템플 스테이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행 경비는 한나래문화재단이 후원한다.



한편 몽골 아르와이헤르 시는 한나래문화재단에게 50년 동안 무상으로 땅을 기증했다. 한나래문화재단은 땅에 공원을 조성하고 명칭을 '한국의 공원'이라 정했다. 한나래문화재단은 앞으로 이 공원에 한국문화원 설립 및 문화 체험 사업 추진을 구상 중이다. 하성미 기자

# "금강경, 영가 집착 끊고 고통 해소 시켜"

**미타선원 금강경 산림법회 입재**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종호)은 7월 16일 백중(우란분절) 금강경 산림법회 입재법회를 경내 극락보전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번 백중을 맞아 미타선원은 특별히 산림법회를 봉행하고 조계종 원로의원 지하 스님,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등 전국 대덕 스님을 초대해 법석을 진행한다. 법회는 매주 일요일이며 회향은 백중인 9월 5일이다.

법문을 맡은 하림 스님은 "영가를 위해 매일 집중적으로 금강경을 들려드리는 것은 집착을 끊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라며 "신도님들도 일상 가운데 매일 한품씩 읽으며 마음에 새겨 마음에 등불을 켜듯 지혜를 얻는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설법했다.



미타선원은 백중 49일 기도 기간 동안 '조상님과 영가님께 편지쓰기'를 진행한다.

하성미 기자

# 사하구불교聯, 안전한 여름 위한 캠페인

**7월 14일 다대포해수욕장 방문**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가 안전한 여름을 당부하며 치안 센터를 방문해 격려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혜우)는 7월 14일 다대포해수욕장과 해변공원에서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진〉 이 자리에는 경승 스님 및 연합회 원윤 스님 그리고 신도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인물을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배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 사하구불교연합회는 8월 31일까지 일주일에 2차례 이상 해수욕장을 방문해 선도활동 및 안전 캠페인을 펼친다.




사하구불교연합회장 혜우 스님은 "캠페인을 통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휴가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앞으로 사회 활동에 더욱 앞장서 좋은 사회 만드는 일에 일조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